

## News

### 금리 올리자 은행으로 역머니무브 정기예금 보름만에 6.1조 급증

머니S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10일 기준 659조 2,629억원... 기준금리 인상 직전일 대비 6조 1,275억원 급증  
예·적금 금리 인상에 이어 특판 출시도 줄이어... 통상 연말, 연초에 특판 상품이 다수 나와 정기예금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내년 대출 더 어렵다...은행권 "대출증가율 4.5% 관리"

데일리안

금융감독원,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4.5% 수준 관리 방침을 각 주요 시중은행에 전달... 이미 연초 목표 5% 초과 상황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  
은행들, 내년에는 주담대,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 DSR 규제도 내년에 더욱 확대

### 로그인 안해도 메뉴 보여요...위기의 은행들, 앱 갈아 엮는다

머니투데이

은행권, 모바일뱅킹 앱 갈아엮어... 기존 앱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  
월간 MAU를 카카오프뱅크에 뺏긴 것도 변화 촉매제... 오픈뱅킹에 이어 마이데이터 경쟁 치열해지면서 은행마다 앱 리뉴얼은 필수적

### 인행 예금 금리 뚝다...케이뱅크 예·적금 금리 최대 0.6%p ↑

중앙일보

인터넷전문은행, 잇단 예·적금 금리 인상...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과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금리를 가입기간별 차등 인상 발표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해석... 연 2%대 금리까지 등장

### 중소형 보험사도 'GA 강화' 열풍...자회사 투자·영업재개로 대형사에 '맞불'

아이뉴스24

중소형 생보사들, 자회사형 GA 경쟁에 본격 뛰어들어... 투자 확대 및 판매채널 늘리기 위함이 목적...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보  
대형사들은 전속설계사에 대한 인건비 축소 의도가 강한 반면, 중소형사들은 상품경쟁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 MZ세대 대상으로 중소형사들에게 기회 가능성

### IFRS17·K-ICS 도입...보험사 신용평가방법 바뀐다

연합인포맥스

IFRS17과 K-ICS 도입되면 보험사 신용평가 바뀔 것으로 예상... 회계와 감독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때문  
RBC비율은 K-ICS비율로 변화... 부채 시가평가로 자기자본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액 측정방식 변화로 요구자본 증가할 가능성 높아... 평균 지급여력비율 100% 웃돌기 힘들것

### 한발 물러선 금감원...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 과징금 재검토 가닥

머니S

금융감독원, 지난 9월 1일 증권사 9곳에 통보했던 과징금 사전통보 조치에 대해 최근 재검토 중... 결과에 따라 과징금 취소 및 대폭 감감될 것으로 보여...  
징계 사전통보 받은 곳은 국내외 증권사 9곳으로 전체 시장조성자 14곳 중 절반이 넘어... 후회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운영 문제점 개선과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 처리 예정 언급

###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500억 추가 투입하기로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500억원 추가 투입... 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진행 결정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지분 100% 보유 중... 주당 50만 원에 10만 주 새로 발행 후 배정 예정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할 수 없습니다.